

중국의 중·근세 문인 지식인

- 韓愈 · 柳宗元 · 魯迅 · 徐志摩 -

김종성*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고대 '士'인 계급
 - III. 중국의 중세 문인 지식인(韓愈와 柳宗元)
 - IV. 중국의 근세 문인 지식인(魯迅과 徐志摩)
 - V. 결론
- 참고문헌
〈後記〉

I. 서론

파란만장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갔지만, 그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르고 정의롭게 돌려보려고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지식인, 고대 중국에서는 '士'라고 일컬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훌륭한 정신과 행동을 높이사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식인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왔는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수양을 함양하였고 창의력을 지녔다. 둘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인격을 겸비하였다. 셋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였다. 넷째, 불굴의 신념과 지조를 지녔다. 다섯째,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에 대항하였다. 여섯째, 자유를 확대시키고 역사를 발전시켰다.

* 숭실대 중문과 교수

동 논문은 이러한 지식인 중에서 특히 중국에 있어 문화적으로 지대한 공로와 업적을 이룩한 중세의 문인 지식인 韓愈와 柳宗元, 근세의 문인 지식인 魯迅과 徐志摩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당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에 대해 문제점을 통감하고 보다 새롭고 자유로운 문장을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전자는 古文運動을 후자는 白話運動을 위해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주인공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인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II. 중국의 고대 ‘士’인 계급

중국의 ‘士’는 본래 天子 또는 諸侯에게 벼슬하는 大夫의 아래 庶人의 위를 차지 하던 계급의 명칭이었으나 변하여 상류사회 지식계급의 사람·뛰어난 인물·도의를 행하고 학예를 닦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說文解字》에서는 ‘士’字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士, 事다. 숫자는 一부터 시작하여, 十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一과 十으로 이루어 졌다. 공자왈, 十가지를 一로 모아 士가되었다.”¹⁾

이에 대해 段玉裁는 다음과 같은 注를 붙여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士라 칭한다. ……학자는 해박한 지식을 요약할 줄 안다. 그러므로 열 가지를 미루어 하나로 요약한다. 오직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을 추구하며 시종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경우 성인의 경지에 달할 수 있다.”²⁾

여기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고대의 士는 자신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인격 수양의 덕목들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士는 본래 귀족 가문에 비교적 지위가 낮은 무리로, 《孟子·萬章下》³⁾에 언급된 周나라의 작위 봉록 제도를 보면 그의 지위와 경제력을 짐작할 수가 있다.

1) “士, 事也. 數始於一, 終於十, 從一十. 孔子曰, 推十合一爲士.” 段玉裁撰《說文解字注》, 20면. (대만: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3)

2) “凡能事其事者, 稱士. ……學者由博返約, 故云推十合一.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 惟以求其至是也. 若一以貫之, 則聖人之極致矣.” 段玉裁撰《說文解字注》, 20면 참조. (대만: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3)

3) 《孟子·萬章下》 참조.

당시 낮은 국가적 지위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士人は 왕왕 국가 통치권자인 천자나 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탕하며 포악한 정치를 펼칠 때 문제를 지적하고 나무라며 상소하였다. 그러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심지어 조정과 지위 등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모두 버리고 떠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정을 등지고 떠난 士人は 자연을 벗삼아 일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갔다.⁴⁾ 그러나 이들은 세상 속에 흠어져 살면서 사회적인 양심을 잃지 않았으며, 혹자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업적을 이룩하려고 노력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아무튼 이로 인하여 중국 고대에 수많은 游士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入世하여 열심히 활동한 士人들이 있는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은 다음과 같다: “덕을 받들고 의를 즐기면 태연자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비는 가난해도 의를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가난해도 의를 잃지 않는 까닭에,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며, 영달하여도 도리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잃지 않게 된다. 옛사람들은 뜻을 이루게 되면 은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신하여서 세상의 존경을 받았다.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자신을 수양하였고, 출세하면 천하를 바르게 이끌어 나갔다.”⁵⁾ 지식인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처신하였다.

지식인은 또한 벼슬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었다. 맹자는 “士人이 벼슬을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⁶⁾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옛날 사람들도 벼슬을 원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벼슬길을 위해 나쁜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다. 나쁜 방법으로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벽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부류다.”⁷⁾ 여기서 기준이란 나쁜 방법으로 하지 않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4) 이들은 빈곤한 생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나름대로의 사상과 행동에 따라서 여러 학파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道家는 柔를 貴하게 여기고; 儒家는 中庸을 숭상했으며; 墨家는 兼愛를 주장하였다.

5) 《孟子·盡心上》: “尊德樂義, 則可以爵鬻矣. 故士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脩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6) 《孟子·滕文公下》: “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

7) 《孟子·滕文公下》: “古之人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不由其道而往者, 與鑽穴隙之類也.”

8) “今游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困, 既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蓋亦有足多者焉.”

또한 士를 협객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통해 士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司馬遷의 《史記·游俠列傳》에 의하면 협객들은 자신의 언행에 충실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목숨을 버리는 희생정신과 위협에 처한 약한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⁸⁾

그러나 협객과 士의 차이는 협객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때로는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지만 士의 경우 시비의 판단이 올바르고 가치관이 분명하여 義를 중시하고 추구하는데 있다. 협객은 무작정 “其言必信，其行必果”를 중시하지만, 士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義를 위해 그의 언행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에 반드시 실천이 있고,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는 자는 주변 없는 소인이다. (言必信，行必果，硜硜然小人哉.)”⁹⁾라고 하였고, 맹자는 “大人者，言不必信，行不必果，惟義所在.”¹⁰⁾라 하였는데 이는 바로 德있는 사람이 반드시 말마다 신용을 지키고, 반드시 행동마다 관철시켜야 할 필요는 없고 의와 함께 하고 의롭게 행동하면 된다는 말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 《論語》에서 義에 관한 언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옳은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¹¹⁾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¹²⁾ “군자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의를 쫓아서 의와 함께 살아간다.”¹³⁾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지식인은 옳은 일을 추구하는데 용기 있고,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귀한 덕목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III. 중국의 중세 문인 지식인 (韓愈와 柳宗元)

한유와 유종원이 거하던 中唐시기에는 문인 선비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仕途에 오르게 되면 한편으론 재능을 발휘하여 왕실에 충성하고 개인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론 俸祿을 받아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었다. 이밖에 많은

9) 《論語·子路》.

10) 《孟子·離婁下》.

11) 《論語·爲政》: “子曰: 見義不爲, 無勇也.”

12) 《論語·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13) 《論語·里仁》: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14) 程蕭·董乃斌 著 《唐帝國的精神文明》, 348면 참조. (중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년)

특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단지 과거에만 합격하고 아직 벼슬을 안한 상태에서도 그의 온 가족은 즉시 부역과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¹⁴⁾

唐代的 과거제도와 관료제도에 관해서는 《舊唐書》의 《職官志》, 《新唐書》의 《選舉志》·《百官志》, 《唐六典》, 《通典》의 《選舉典》·《職官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五代 王定保의 《唐言》과 여러 唐人筆記에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清代 徐松의 《登科記考》는 唐代 科擧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작이다. 이밖에 현대학자들의 연구로는 陳寅恪·岑仲勉의 고증과 논문 외에 張國剛의 《唐代官制》, 傅璇琮의 《唐代科擧與文學》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¹⁵⁾

唐代 과거제도의 특색은 과목이 매우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新唐書·選舉志》와 《通典·選舉典》을 살펴보면 秀才, 明經, 進士, 明法, 明字, 明算, 史料, 開元禮, 道擧, 童子 등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常選”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禮部에서 주관하였다. 이 가운데 明經科와 進士科에서 사람을 많이 뽑았으며 또한 進士에 及第한 사람이 장차 좋은 관직도 얻을 수 있고 승진도 빨라, 사회적인 명성이 높고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進士制度는 唐代에 크게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武后 시대에 시험내용도 文章과 詩賦를 중심으로 치렀기 때문에 전통적인 門閥士族의 세습제를 무너뜨리고 벼슬의 길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문인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士族계층 출신이 아니라도 일단 진사에 합격하면 정치무대에 올라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¹⁶⁾ 그러므로 小官僚 가정 출신에다 “7세부터 공부하여 13세에 글을 잘 썼다. (生七歲而讀書, 十三而能文.)”¹⁷⁾는 韓愈로서는 出仕를 위해 진사과를 응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문학적으로는 駢文이 성행하였는데 한유와 유종원은 이러한 형식에 치우친 변문의 풍토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산문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古文運動을 제창하였다. 이에 대해 唐代 劉禹錫은 《故尙書禮部員外郎柳君集記》에서: “漢之文, 至列國而病, 唐興復起.”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列國”은 六朝를 지칭함을 알 수 있

15) 앞의 책 350면 참조.

16) 劉餗《隋唐嘉話》중에 高宗·武后 시대에 宰相까지 역임한 薛元超의 말이 인용되어있는데, 그의 “平生三恨” 가운데 첫 번째가 “始不以進士擢第”였다. 《唐摭言》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進士科始於隋大業中, 盛於貞觀, 永徽之際; 縉紳雖位極人臣, 不由進士者, 終不爲美……其艱難謂之 ‘三十老明經, 五十少進士.’”

17) 《與鳳翔刑尙書書》.

다. 清代 黃宗羲는 《南雷文定前集卷一·庚戌集自序》에서: “余觀古文, 自唐以後, 爲一大變. 唐以前字華, 唐以後字質. 唐以前句短, 唐以後句長.”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소위 “字質句長”의 문장은 中唐 이후 발달한 산문을 지칭하며, 소위 “字華句短”의 문장은 詞藻華美한 육조문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소위 四六文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駢文은 對仗, 典故, 平仄을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對仗은 均衡과 對稱을 중요시해 미적인 면을 추구하였으며, 典故의 사용은 심리적 거리와 관계 있는 것으로 物我의 거리를 예술적으로 증첩시키거나 좁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平仄 또한 聲律에 관계된 것으로 역시 음악적인 미를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다. 육조시대에 이러한 문장이 극치로 발달하여 유행하였으나 한유, 유종원 시기에 고문운동이 일어나 이러한 駢儷體 문장이 “浮艷”하다 하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후 駢文과 散文 두 갈래로 나뉘어졌으나 향후 駢文은 주류가 되지를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신해혁명이후 문학개혁운동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그 계기는 1917년 胡適이 《新青年》에 “八不主義”¹⁸⁾를 주장하는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학개혁운동은 중국 역사상 제2의 백가쟁명으로 불리는 신문화운동 시기에 백화운동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오늘의 실용적인 중국어 문 형태를 탄생케 만든 것이다.

1. 문인 지식인으로서의 韓愈(768-824)

韓愈는 唐代가 가장 발전하였다가 安史의 亂을 거쳐 점차 衰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中唐時期를 살다간 훌륭한 문학가다. 역사가 문학가 모두 中唐을 별도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中唐을 시점으로 중국 전체의 역사는 盛에서 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보고, 전환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쇠락의 원인은 皇帝의 腐敗·宦官의 專橫·藩鎮의 割據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韓愈는 유가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가의 도를 전파하고 文風을 쇄신하는 古文運動을 전개하며 후진을 교육하고 훌륭한

18) 1. 표현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옛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다. 3. 문법에 맞게 써야 한다. 4. 병도 없으면서 신음하는 투의 글을 써서는 안 된다. 5. 진부한 상투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6. 典故를 쓰지 아니한다. 7. 對句를 쓰지 아니한다. 8. 俗字와 俗語를 피하지 아니한다. (一, 須言之有物. 二, 不學古人. 三, 須講求文法. 四, 不作無病之呻吟. 五, 務去爛調套語. 六, 不用典. 七, 不講對仗. 八, 不避俗字俗語.)

문학작품과 문학이론을 남겨, 문학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한 인물이다. 오늘날 韓愈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문학적인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기고 고문운동을 전개했으며 유가의 도를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1) 爲政

한유는 벼슬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하여 두 차례 좌천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는 모두 좌천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과 견해를 담아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림으로써 비롯된다.

첫 번째는 監察御使로 있을 때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당시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음을 알고 《御史臺上論天旱人饑狀》을 올려 부패한 관리들을 탄핵하였다. 그 결과 간신 李實의 노를 사서 貞元 19년(803) 동절기에 陽山令으로 좌천되어 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독서와 명승지 유람, 친구들과의 교제와 후진의 양성 등으로 1년여 동안 지내다 사면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다.

두 번째는 儒·佛·道가 성행하던 상황에서 憲宗이 鳳翔法門寺에 보관되어 있던 佛骨을 궁중에 영입하여 3일간 받들다가 돌려보냄으로 장안을 들끓게 하였다. 한유가 이러한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고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 《論佛骨表》를 상소함으로 인해 황제의 노를 사서 元和 14년(819) 潮州刺史로 좌천을 가게 된다. 이곳에서는 약 7개월간 있다가 정상이 참작되어 다시 새로운 곳인 袁州刺史로 부임된다.

이밖에 穆宗 長慶 시절 한유가 조정의 兵部侍郎으로 있을 때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藩鎮의 세력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河北 鎮州에 조정에서 임명한 절도사 田弘正이 무분별하게 사치하고 부하 장수들을 초개 같이 여기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때리고 욕하고 죽이곤 하였다. 이로 인해 부하 장수들의 원한이 깊은 가운데 조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의 신변 부하인 兵馬使 王庭湊가 야밤에 군사를 이끌고 田弘正의 幕僚와 가족 수십명을 살해하고 조정에 자신을 정식으로 鎮州節度使로 임명하여 하북 지역을 다스리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藩鎮이 지역을 점령하고 왕 노릇 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게 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국토가 四分五裂 될 것을 우려 즉시 15만 대군을 파견하여 토벌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패하고 상대가 河北의 요충지인 深州까지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조정은 당황하여 특사를 파견 항복을 권유하고 우선 深州를 반환한 후에 조건을 논하는 회유책을 쓰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유가 목숨을 걸고 조정의 특사 신분으로 王庭湊를 만나러 갔다. 다행

히 深州를 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무사히 돌아왔으나 후에 약속대로 돌려 받지를 못하였다. 결국 소득은 없었으나 한유의 행동을 후대사람들은 “勇奪三軍之帥”라 말하고 있다.

2) 爲人

한유는 潮州와 袁州에 있을 때 현지 주민을 위한 업적이 몇가지 전해지고 있다. 조주에 도착해서 5편의 祭神文(祭湖神文·祭止雨文·祭城隍文·祭界石文·祭大神文)과 1편의 祭鱈魚文을 썼다. 제신문은 모두 현지 백성들을 위해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것이며, 祭鱈魚文은 비록 祭文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逐鱈魚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색채가 진하나 한유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과 해로운 동물을 제거하려는 용기는 가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당시 조주 지역에 악어가 나타나 주민들에게 해를 끼쳤으나 한유가 제악어문을 써서 낭독한 후에 당일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악어가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조주에 부임한 후 배푼 덕정으로는 향교를 설치하고 교육을 추진한 것인데, 행정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德과 禮에 의지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유는 趙德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여 교사로 세우고 나아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袁州에 도착해서는 地主들이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한 것을 보았다. 토지세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녀를 저당 잡히게 하고 기한이 넘으면 종신 奴婢로 삼았다. 唐律에 良人은 奴婢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地主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사노비의 형태가 성행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한유는 이미 유종원이 柳州에서 종살이 한 것으로 채무를 대신하여 자유를 찾아 준 것을 본받아 일시에 731인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는 한유가 펼친 덕정으로 유명하다. 이 뿐 아니라 한유는 조정에 《應所在典帖良人男女等狀》이라는 상소문을 올려 백성들의疾苦를 조정에 알렸다.

3) 爲文

韓愈는 유가의 도를 밝히고 널리 전파하는 것을 본인의 임무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上宰相書》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 28세 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농·공·상의 호적에 없으며, 하는 일은 독서하고 글을 지으며 堯·舜의 도를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이며, 닭이 울면 일어

나 열심히 일하고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모두 성인들의 책이며, 楊·墨·釋·老의 학문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모두 六經의 요지를 요약하여 문장을 지었으며, 邪惡을 억누르고 정의와 함께 하며, 세속의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¹⁹⁾

앞에서 언급한 六經은 詩·書·易·禮·樂·春秋를 일컫는 것으로 모두 儒家의 정전인 것을 볼 때, 韓愈의 사상은 유가의 聖道를 근본으로 爲政·爲人·爲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答尉遲生書》에서 “문장력이 부족하면 좋은 글을 지을 수 없다. (辭不足不可以爲成文)”며, 이를 위해 훌륭한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答李翊書》에 의하면: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三代와 兩漢의 글이 아니면 읽으려하지 않았고, 성인의 뜻이 아니면 품으려하지 않았다. 거할 때는 무언가 잇은 듯, 행할 때는 길을 잃은 듯 했으며, 마치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막연히 무엇에 홀린 듯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다 심중에 얻은 바가 있어 붓을 들어 글을 쓸 때는 진부한 문장을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옛 문장의 내용이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 할 줄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바르지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마치 흑백을 구분하듯 알게 되었다. 이에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자 서서히 마음에 얻는 바가 있게되었다. 마침내 심중에 얻은 바를 손에서 글로 써 나갈 때, 글의 구상이 물 흐르듯 떠올랐다.”²⁰⁾

여기서 韓愈가 주장하는 도덕적 수양은 “三代·兩漢의 書”가 아니면 읽지 않는 것이고, “聖人の 뜻”이 아니면 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창작기교의 단련은 “三代·兩漢之書”의 창작 기법과 표현 기법을 터득하며, “陳言之務去”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仁義의 길을 행하며, 六經의 근원에 침잠하여 길을 잃지 않고 평생토록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작품에서 유학을 옹호하기 위해 당시 유학자들이 다소 소홀히 하던 《孟子》·《大學》·《中庸》·《周易》등을 광범위하게 자주 인용하기도 하였다.

19) “今有人生二十八年矣, 名不著于農工商賈之版. 其業則讀書著文歌頌堯舜之道, 鷄鳴而起, 孜孜焉亦不爲利; 其所讀皆聖人之書, 楊墨釋老之學, 無所入于其心; 其所著皆約六經之旨而成文, 抑邪與正, 辨時俗之所惑.”

20) “始者非三代兩漢之書不敢觀, 非聖人之志不敢存, 處若忘, 行若遺, 儼乎其若思, 茫乎其若迷.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 惟陳言之務去, 憂憂乎其難哉! ……如是者亦有年, 猶不改, 然後識古書之正僞, 與雖正而不至焉者, 昭昭然白黑分矣. 而務去之, 乃徐有得也.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 汨汨然來矣.”

그는 또 《答陳生書》에서 “先乎其質，後乎其文。”이라 언급하고, 《答劉正夫書》에서는 “師其意，不師其辭.”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옛 성현의 옳은 사상과 뜻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창작을 하고 문장을 지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우선 옛 성현들의 저작 정신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들이 사용한 어휘 자체 보다, 그들이 문장에 사용한 소재와 문장의 질박함을 이해한 후, 어휘의 사용·문장의 구성·표현의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이 좋고 나쁜 것은 어휘의 화려함과 彫琢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의 충실함과 문장의 유창함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작문에 있어서는 자신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남보다 뛰어난 문장을 추구하였다. 《答劉正夫書》에 의하면:

“여러 물건 중에 조석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봤을 때만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합니다. 문장도 어찌 이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집안의 여러 물건들을 모두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보통물건이 아닐 것입니다. 군자가 문장에 대해서도 어찌 이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마치 성인의 도를 표현하는데 있어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뿐이지, 만일 사용한다면 반드시 뛰어난 문장을 사용할 것입니다. 뛰어난 것은 다름이 아닌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수립하고 옛 것을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가 있는 이래 누가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글은 반드시 뛰어난 자의 글입니다.”²¹⁾

한유가 이러한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고문을 모범으로 삼아 창조적인 문장을 구사하자는 것이었고, 옛사람의 진부한 말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仁義道德을 보호하고 邪說을 막으려는 것이었기에 文以載道가 뛰어난 散文을 썼으며, 이를 위해 부득이 당시에 유행하던 규칙적인 운율과 고사성어로 가득 찬 駢儷文을 배격했고, 자유롭고 간결한 문체의 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풍격을 갖춘 새로운 문장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當代에 나무라는 사람이 없겠지만, 또한 반드시 후세에 전해지는 글도 없을 것입니다.”²²⁾

21) “夫百物朝夕所見者，人皆不注視也；及觀其異者，則共觀而言之。夫文豈異於是乎?……家中百物，皆賴而用也；然其所珍愛者，必非常物。夫君子之於文，豈異於是乎?……若聖人之道，不用文則已；用則必尙其能者。能者非他，能自樹立不因循者是也。有文字來，誰不爲文，然其存於今者，必其能者也。”

22) “不自樹立，雖不爲當時所怪，亦必無後世之傳也。”

4) 古文運動과 한유 散文의 특징

唐代만 해도 六朝 駢文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古文運動에 대해서는 初唐時期 일부 고문을 숭상하는 학자들 외에는 관심이 없던 가운데 中唐時期에 들어와 韓愈와 柳宗元의 제창으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蘇軾은 《潮州韓文公廟碑》에서 “文起八代之衰，而道濟天下之溺。”이라 하였다. 여기서 “八代”는 사실 문학적인 관념으로 볼 때 “六朝”를 의미한다. 이는 문장 형식과 특징에 있어 六朝 四六文이 자유로운 長短文으로 바뀐 것이며 표현수법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산문은 실로 唐代 韓愈에 이르러 산문의 문학적성과 다양성을 한차원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錢穆 선생은 《雜論唐代古文運動》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韓愈의 古文은 바다와 육지 같이 포용력이 커서 표현해 내지 못하는 내용이 없으며, 六經百家的 내용도 모두 표현해 낼 수 있다.”²³⁾ 이와 같이 韓愈는 論說文 뿐 아니라 書牘文, 贈序文, 傳狀文, 哀祭文, 碑誌文 등 무든 분야에서 표현의 영역을 넓혔으며 주로 韻文으로 쓰는 哀祭文이나 碑誌文도 산문으로 훌륭하게 창작해 냄으로써 형식과 내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묘사하고 이치를 논하였다.

한유 산문의 특색은 긴 문구와 짧은 문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인데, 그는 문장표현에 있어 三字句 · 四字句 · 五字句 · 六字句 · 七字句 · 十二字句 등 문구를 자유롭게 구사하였으며²⁴⁾ 이밖에 다른 문장에서는 一字句 · 二字句 등도 사용한 것을 미루어 韓愈의 산문은 장단문의 응용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문의 주요 구성요소로 虛詞가 있다. 허사는 문장 가운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허사의 용도를 대략 다섯 가지로 논하고 있다. 첫째, 문장을 정확하게 해준다. 둘째, 문장을 어법에 맞게 해준다. 셋째, 문맥을 부드럽게 해준다. 넷째, 문장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다섯째, 작가의 개성을 나타내준다. 劉知幾는 《史通》에서 “사람은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데 반드시 餘音으로 문구를 보충하여 始末을 표시한다. 伊, 惟 ·

23) “韓公於古文，必期能海涵地負，無所不蓄。六經百家，皆歸鎔鑄。”(羅聯添 編《中國文學史論文選集》三，1022면 참조. 대만: 學生書局, 1979년)

24) 《與鳳翔邢尚書書》: “假如賢者至，閣下乃一見之，愚者至，不得見焉，則賢者莫不至而愚者日遠矣。假如愚者至，閣下以千金與之，賢者至，亦以千金與之，則愚者莫不至而賢者日遠矣。”

25) “夫人樞機之發，臺臺不窮，必有餘音足句，爲其始末。是以伊，惟，夫，蓋，發語之端也；焉，哉，矣，兮，斷句之助也。”

夫·蓋 등은 문구의 시작을 나타내고; 焉, 哉, 矣, 兮 등은 문구의 끊어짐을 나타낸다.”²⁵⁾라고 하였으며, 劉大櫟도 《論文偶記》에서 “허사를 잘 사용해야만, 작가의 정신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허사의 활용은 唐·宋文의 특징으로 秦·漢文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사의 활용은 고문의 문장표현에 있어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기도 한다. 韓愈는 이러한 허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예컨데: “其已成熟乎, 將以爲友也; 其未成熟乎, 將以講去其非而趨是耳.”²⁷⁾ “吾言之而聽者誰歟? 吾唱之而和者誰歟? 言無聽也, 唱無和也, 獨行而無徒也, 是非無所與同也, 足下知吾心樂否也!”²⁸⁾ 전자의 경우 “乎·也·乎·耳”를 사용하여 어투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두 개의 “歟”자와 다섯 개의 “也”자를 사용해 친구에 대한 다정다감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허사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인 지식인으로서의 柳宗元(773-819)

唐代的 문인 지식인 柳宗元은 문학적 정치적인 면에서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당시 낮은 생활 수준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강압 등을 당하는 좌천지 백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펼침으로써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 永州와 柳州의 시민으로부터 높이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좌천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업적을 이룩한 것은 문인 지식인으로서 무엇 보다 문화개혁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고 정치적으로 서민을 잘 보살폈기 때문이다. 이에 그의 이러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종원의 철학사상

유종원의 철학사상은 “天人不相預”²⁹⁾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철학 정신을 담고 있는 대표작품으로는《天對》·《天說》·《貞符》·《天爵論》·《斷刑

26) “虛字皆備, 作者神態畢出.”

27) 《答呂豎山人書》.

28) 《與孟東野書》.

29) 《答劉禹錫天論書》: “天非預乎人也”. “生植與災荒, 皆天也; 法制與悖亂, 皆人也, 二之而已. 其事各 行不相預.”

論》·《時令論》·《非國語》·《六逆論》·《封建論》·《與韓愈論史官書》 등이 있다. 이 중 《天對》는 屈原의 작품 《天問》³⁰⁾에 대한 답변문으로 대략 12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天人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종원은 천인관계의 인식에 있어 天은 “生植”의 능력과 함께 “災荒”의 능력이 있으며, 人은 “法制”의 능력과 함께 “悖亂”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天의 “생식”과 “재황”이 人에 대해 간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人의 “법제”와 “패난”이 天을 간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³¹⁾ 천과 인은 각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서로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종원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법칙을 서로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견해를 보여준다.

이밖에 본질과 현상 문제에 있어서 유종원은 《與楊京兆憑書》에서 “夫人有有之而恥言之者，有有之而樂言之者，有無之而工言之者，有無之而不言似有之者.”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有之”는 학문과 도덕성을 갖춘 자를 지칭하고, “無之”는 학문과 도덕성이 없는 자를 지칭한다. 이러한 경우 같은 “有之”의 사람이 “恥言之”와 “樂言之”의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같은 “無之”의 사람도 “工言之”와 “不言似有之”의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有之” “樂言之”와 “無之” “工言之”, 그리고 “有之” “恥言之”와 “無之” “不言似有之”는 모두 다 본질은 다르나 현상은 서로 비슷한 경우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질과 현상이 불일치함으로 “知之難，言之難，聽信之難.”의 국면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종원은 이러한 경우에 본질과 현상의 양자일치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른 각도에서 현상에 해당하는 “文章”을 통하여 본질에 해당하는 “立言”을 살피면 十 중 七·八은 헤아릴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³²⁾

30) 屈原은 유배 생활 중에 현실에 대한 불만과 상심, 비분한 마음으로 《天問》이라는 글 속에서 모두 170여개의 질문을 하고 있다. 그는 자연현상·사회현상·역사사건·현실문제 등 천상에서 지하, 만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기탄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魯迅은 그 의 범위가 “遂古之初，直至爲物之瑣末.”이라 논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放言無譚，爲前人所不敢言.”이라 평하였다.

31) 《答劉禹錫天論書》.

32) 《與楊京兆憑書》：“今之世言士者，先文章，文章，士之末也。然立言存乎其中，卽末而操(探)其本，可十七八，未易忽也.”

2) 유종원의 정치사상

유종원의 정치사상은 유학을 정통으로 받드는 당시 지식인들의 학문적 분위기로 인하여 성인의 도를 근본으로 한 정치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唐나라는 본래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공전의 봉건제국을 건설하여 번영을 이룩하였으나 安史의 亂을 계기로 점차 기울기 시작했으며 유종원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하여 통치체계의 경제적인 약탈이 심화되고 지방의 藩鎮세력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의 통치력 또한 매우 약화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유종원은 永貞革新³⁴⁾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永州司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유종원의 《答周君巢餌藥久壽書》를 보면 그의 이러한 성격과 진보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척박한 영주지방에서 억울한 심정으로 장기간 굴욕적인 생활을 지냄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가운데 그의 친구가 그에게 특별히 서신을 보내어 隱者의 생활을 즐기고 丹藥을 복용하여 수명연장과 장수를 추구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때 유종원은 친구의 이러한 권고를 결단코 거절하면서 자신은 神仙의 존재나 丹藥의 효능에 대해 믿지 않음을 밝히고, 나아가 한 사람이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살게 하고 국가 정치를 안정되게 한다면 비록 장수하지 못해도 후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 그 정신은 영원히 남는 것이나, 반대로 국가의 정치적 안정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의 疾苦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비록 근육이 튼튼하고 건강하며 아무리 오래 장수를 하여도 요절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오히려 상대더러 方士에게 미혹 당하지 말며 벼슬을 하지 못했을 지라도 “백성들의 우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유종원의 정치사상을 간략히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吏爲民役”³⁵⁾이라는 백성중심의 정치사상이다. 이는 곧 백성이 귀하고 관리가 경하다는 사상을 반

33) 《寄許京兆孟容書》: “唯以中正信義爲志, 以光堯·舜·孔子之道, 利安元元爲務.”

34) 당시 짧은 기간이지만 개혁을 추진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조정의 정치 권한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공고하게 한다. (2) 宦官을 몰아내고 藩鎮세력을 억제한다. (3) 세금을 감 면하고 부정한 정치를 척결한다. (4) 부패한 관리를 몰아내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한다. 는 것들이다.

35) 《送薛存義序》: “凡吏於土者, 若知其職乎? 蓋民之役, 非以役民而已也.”

《送寧國范明府詩序》: “夫爲吏者, 人役也.”

영한 것으로 관리는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리들의 억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매우 이상적인 정치사상으로 간주된다. 둘째, 중앙집권 강화의 정치사상. 安史의 亂이 평정된 이후에 藩鎮의 割據는 당시 조정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 환관들의 집권 등으로 인하여 사회 안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종원은 《辯侵伐論》에서 藩鎮의 제거와 국가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賢者를 등용하고 어리석은 자를 배제하는 정치사상. 그의 이러한 사상은 《封建論》·《六逆論》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밖에 유종원은 《詠荊軻》시에서 형가에 대해 “勇且愚”의 평가를 내림으로 진시황에 대한 암살 행위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여 탄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역사의 발전추세를 돌이킬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비극만 초래한다고 보고, 동시에 당시의 근시안적인 자객풍조에 대해서도 경멸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기만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사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敵戒》에서는 적도 생각하기에 따라 유익한 면도 있다는 도량을 보이며, 무조건 적이 있음을 두려워하고 없음을 즐거워하는 태도는 옳지 않음을 논하고 있다.³⁶⁾

3) 유종원의 爲民정치

유종원이 永州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대부분 독서와 창작 그리고 산수를 유람하면서 보냈는데 이는 좌천된 한직의 관리로서 울분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문학창작 활동과 사상을 풍부하게 하는데 적극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賢者不得志於今，必取貴於後，古之著書者皆是也.”³⁷⁾ 라하며 창작활동에 더욱 매진하였다. 그리고 향후 또 다시 永州 보다 더 먼 柳州에서 4년간 刺使로 있으면서 그의 정치 재능을 심분 발휘하여 爲民 정치를 펼쳤다.

그는 시종 변치 않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柳州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관청의 수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柳州 백성을 위한 많은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첫째, 노비들을 해방 시켰다. 현지 풍속으로는 돈을 빌리고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상대

36) 《敵戒》: “皆知敵之仇，而不知爲益之尤；皆知敵之害，而不知爲利之大。”

37) 《寄許京兆孟容書》.

의 노비가 되었는데, 유종원은 그들이 빚을 갚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능력이 없는 자는 본인의 돈으로 도와주곤 하였다.³⁸⁾ 이러한 善政은 현지 觀察使의 인정을 받아 他州에도 실천시켜 수천명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둘째, 농민들의 생산을 중시하고 이를 도왔다. 유종원이 遊民들을 모아 황무지를 개간하여 나무와 대나무, 채소와 곡식을 심도록 하였으며, 돼지·소·닭·오리 등을 잘 키우도록 하였다.³⁹⁾

그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농업·임업·목축업을 발전시켰으며 본인도 몸소 柳江 강변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柳州城 서북지역에는 감귤을 심었다. 그리고 屈原 처럼 끝나무의 품격을 찬미하였다.⁴⁰⁾ 셋째, 문화사업을 육성하였다. 유종원이 柳州에 도착한지 4개월만에 孔子廟를 새로 지었다.⁴¹⁾ 이는 문화교육을 중시하는 의미로 당시 문화가 매우 낙후된 柳州로써는 역사적인 커다란 사건이었다. 《柳州縣志》에 의하면 柳州사람이 학문을 알게 된 것은 유종원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유종원의 문화교육에 대한 공로를 알 수 있다. 이밖에 백성들을 위하여 공금으로 우물을 파서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유종원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 柳州 백성은 羅池廟를 지어 그를 기념하였다.

4) 古文運動

유종원의 고문운동은 “소시적에는 문장을 쓸 때 화려한 것이 뛰어난 문장으로 알았으나, 장성한 후 비로소 문장은 도를 밝히는 것임을 알았다. (始吾幼少, 其爲文章, 以辭爲工. 及長, 乃知文者以明道.)”⁴²⁾ 라고 한데서 기본 정신을 알 수 있다. 중국 산문의 다양한 문체는 당대에 들어와 비교적 많은 발전을 하여 贈序體 등 새로운 문체가 유행을 하거나 또는 書信體와 같이 내용이 풍부해지고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유와 유종원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크다. 유종원은 산문의

38) 《新唐書 柳宗元傳》: “柳人以男女質錢, 過期不贖, 子本均, 則沒爲奴婢. 宗元設方計, 悉贖歸之. 尤貧者, 令贖, 視值足相當, 還其質. 已沒者, 出己錢助贖.”

39) 韓愈의 《柳州羅池廟碑》.

40) 《種柳戲題》시. 《柳州城西北隅種甘樹》시.

41) 唐 貞觀 二年(628년) 당태종이 통치자의 教化백성의 상징으로 천하 州縣에 孔廟를 세우고 四時祭祀를 올리도록 명령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柳州에 孔廟를 세운지 백년이 훨씬 넘어 모두 파손되어 유명무실하였다.

42) 《答韋中立論師道書》.

특색을 살려 雜記·雜說류와 傳狀류의 문체로 아름답고 다양한 문장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중 특히 山水遊記篇들은 고금에 있어 탁월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鵠說》·《捕蛇者說》·《謫龍說》·《罷說》·《觀八駿圖說》과 《三戒》·《種樹郭棗駝傳》·《童區寄傳》·《梓人傳》·《宋清傳》·《蝨蝦傳》 등 모두 표현이 수려하고 뛰어난 명문으로 잘 알려진 문장들이다. 이는 詩歌의 순수문학적인 감정과 정취, 風格과 정신을 산문에 잘 융합시켜 산문으로 하여금 순수문학적인 이미지를 더욱 결집시키고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⁴³⁾ 유종원의 이러한 작품활동은 실로 후대의 “風俗”을 변화 시켰으며 고문운동을 적극추진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문운동의 내용은 첫째, 駢文을 반대하고, 散文을 제창한다. 둘째, 道를 위해 글을 쓰고, 道를 위해 학문을 한다. 셋째, 진부한 상투어를 쓰지 말고, 독창적인 자기만의 표현을 쓴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이론과 함께 실천이 필요한데 한유와 유종원 이전의 인물들은 이론은 있으나 작품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한유와 유종원은 작품을 남김으로써 비로소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으며 나아가 고문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유종원의 경우 永州로 좌천되어 가셔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하여 더욱더 훌륭한 문장들을 많이 남겼다. 이러한 훌륭한 문장의 명성으로 인하여 선비들이 가르침을 요구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많은 선비들에게 가르침을 주곤 하였다.⁴⁴⁾

IV. 중국의 근세 문인 지식인(魯迅과 徐志摩)

동양의 역사는 興亡盛衰와 함께 통일과 분열, 분열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진행되며 그 가운데 “治久必亂, 亂久必治”의 역사관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명이 다되어서인지 아니면 인위적 통치의 부재에서인지 약 2백년을 이어온 淸 왕조는 1839년 발발한 아편전쟁을 계기로 점차 衰亡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구열강의 침략이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구열강과의 광범위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가 도입되고 많은 지식인이 구국의 대열에 가담하게

43) “宗元之山水遊記, 無不描寫精微, 意味深永; 較之北魏鄴道元之水經注, 有青出於藍而勝於藍之成績. 韓愈以作文之法作詩, 而柳宗元則以作詩之法作山水遊記.” (葉慶炳 著《中國文學史》上冊, 373면. 대만: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1980, 11)

44) “南方爲進士者, 走數千里從宗元游. 經指授者, 爲文辭皆有法.” (《新唐書·柳宗元傳》)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당면한 경제적 빈곤, 국내 정치의 혼란, 열강의 침략 등 내우외환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황제의 시대가 종식되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화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신문화운동⁴⁵⁾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문화적 개혁을 통해 구국 또는 신중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근본적으로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진보적인 지식인 蔡元培·陳獨秀·胡適 등이 신문화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채원배는 당시 북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진독수는 1915년에 청년의 각성을 목표로 창간한 《青年雜誌》(1년후《新青年》⁴⁶⁾으로 개칭)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곧 신문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호적은 1917년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여 “진부한 옛것을 힘써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용 있고 살아 있는 글을 쓰도록 강조하였다. 이어 1918년에는 《建設的文學革命論》을 발표하여 口語의 문학, 문학의 口語化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문학적 개혁사상과 함께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인 글들이 많이 발표되고 석자들의 공감을 사면서 실제 노신·서지마 등 여러 문인들에 의하여 백화문학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맞는 문학형식의 추구는 과거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나아가 전통사상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써 민주주의와 과학의 정신에 입각한 서구의 여러 근대적인 사조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 당시 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의 신문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문인이 있는데 이는 노신과 서지마다.

노신과 서지마는 중국의 근세 문인 지식인으로서 당시 문학혁명의 핵심과제인 문언문을 백화문으로 바꾸는 작업과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백화문으로 된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장착해 냄으로써 백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신은 白話小說과 산문에서 서지마는 白話詩와 산문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이로써 국가와 민족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45) 중국은 1919년 5·4운동을 전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넓은 의미로는 1915년부터 1920년대 초반에 걸친 전반적인 사상·문학혁명이라 할 수 있는 신문화운동을 가리킨다.

46) 《新青年》은 국민의식 속에서 민주와 과학을 추진하기 위해 유교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했음으로, 예로부터 확고 부동한 권위를 누리고 있던 文言文을 부정하고 口語문학을 정통으로 하자는 《文學改良芻議》 역시 봉건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는 주장이었기에 胡適의 구어문학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였다.

에 이 두 문인 지식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인 지식인으로서의 魯迅(1881-1936)

노신은 18세 때 남경의 육군학교 부설 礦路學堂(礦務鐵路學堂)에서 독일어 및 새로운 서양식 과목을 배웠다. 졸업 후 22세 때 일본에 유학하여 센다이(仙台)와 도쿄(東京)에서 8년간 수학하고 宣統 1년(1909) 29세 때 귀국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북경에서 15년간 교육부 관리로 사회교육국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廈門대학 中山대학에서 잠시 교편 생활도 하였다.

1) 노신의 애국심

노신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 남경에서 嚴復(1853-1921)의 《天演論》⁴⁷⁾을 읽고 그속에 담긴 진화론적 학설인 적자생존의 법칙이 국제사회 속의 나약한 중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족적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진화론적 이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혁신시켜 새로이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염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후 문필활동을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쇠퇴를 상징하는 봉건주의와 낙후된 의식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잘못된 전통과 의식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문학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동기와 계기도 《吶喊·自序》에 의하면 그가 센다이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중 “당시 학교에서는 세균학강의에 영화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남을 때에는 풍경이나 시사에 관한 것도 보여주었다. 마침 러일전쟁 때였기 때문에 시사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때로는 그와 같은 영화 속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포들과 만나게 되었다. 러시아를 위해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참수 당하는 동포와 그것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많은 동포들이었다. 모두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감각한 얼굴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대체로 무지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건강해도 바보 같은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문학이 가장 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

47) 《天演論》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25-1895)의 《진화론과 윤리학》(1894)을 발췌 번역하고 부분적으로 역자의 의견을 첨가한 책.

학을 그만두고 도쿄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후 노신은 도쿄에 있을 때 동유럽의 문학작품을 탐독하였는데 주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그리스 등 당시 약소민족의 문학을 즐겨 읽었다. 자신의 조국인 중국과 마찬가지로 피압박 민족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 노신의 문학활동

1918년 이전에는 주로 책의 내용을 필사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會稽郡의 文獻을 필사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 1918년 4월 《新青年》에 《狂人日記》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향후 《阿Q正傳》 등 수십편의 소설을 썼다. 1923년에 14작품을 모아 《吶喊》을 출판하였는데 이 시기가 노신으로서의 창작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였으며 《阿Q正傳》이 최고봉에 달하였다. 당시 노신은 산문도 함께 썼는데 이 때 쓴 산문작품들은 《熱風》에 수록하였다. 1924년에는 《祝福》·《在酒樓上》을 썼으며 1925년에는 《離婚》 등의 작품을 써서 모두 11작품을 모아 1926년 9월에 《彷徨》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산문시를 써서 《野草》를 출판하였다. 이후 중요한 작품집으로는 《故事新編》이 있다.

이상의 작품들을 노신은 모두 새로운 구어문체인 백화문으로 창작하였다. 노신이 《광인일기》를 발표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정식문장에 문언문이 사용되었고 정통적인 문학용어 역시 문언문이었다. 그러나 문언문은 古文으로써 현실의 생동감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그러므로 백화운동과 문학혁명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口語가 아니면 문학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문학은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과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뛰어난 문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휘 구사력과 문장표현력이 훌륭하며 깊은 사상성이 내재되어 있는 백화 문학작품을 노신은 최초로 창작해 냈을 뿐 아니라 향후 이와 같은 백화 문학작품을 대량으로 창작해 낸 것이다.

3) 노신의 문학세계

노신의 작품은 대부분 봉건적 국민의식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으로 자국민의 문제

점들을 냉철하게 비판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민주와 자유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쓰여진 작품들이다.⁴⁸⁾

노신의 《狂人日記》는 호적과 진독수의 구어문학과 문학혁명 주장을 최초로 실친 한 백화 소설작품으로 스토리 내용은 유교의 억압적인 도덕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작중인물인 狂人을 통해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결말은 “어린이를 구하라”는 말로 맺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장래를 위해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은 과거의 유물인 봉건사회의 전통과 유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노신의 중국인에 대한 평판은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 ‘仁義道德’이라고 쓰여있지만 이는 바로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이다; 자신이 타인을 잡아먹으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항상 매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엿보며 서로 경계하고 있다.” 말하고 이어 중국인은 모두 “사자 같이 흉악한 마음, 토끼 같이 비겁하고 나약한 면, 여우같은 교활함……”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겨 노신의 표현을 허무주의로 간주하기도 한다.⁴⁹⁾

이후 1921년 12월 4일부터 다음해 2월 2일까지 베이징의 신문 《晨報副刊》에 연재된 《阿Q正傳》은 신문학의 승리를 확인하고 또한 작가 노신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은 “阿Q”라는 낄팍팔이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봉건적인 중국사회가 만들어낸 민족적 비극을 풍자하고 典型化한 것인데⁵⁰⁾ 독자들은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는 阿Q 기질을 충격을 받았고 이 작품은 곧바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阿Q의 기질을 대략 요약하면 첫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면. 둘째, 정신 승리법. 셋째, 기회주의적인 행동. 넷째, 과대망상과 지나친 자존심. 등이 있다.⁵¹⁾

48) 노신의 산문 《南腔北調集·我怎麼做起小說來(나는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1933) 속에서 “我的取采, 多采自病態社會的不幸的人們中, 意思是在揭出痛苦, 引起療救的注意.(나는 병든 사회의 수 많은 불행한 사람들로 부터 소재를 찾았다. 그 의도는 질병과 고통을 거론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루쉰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스스로 서술한 것으로 계몽주의와 인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49) 蘇雪林的《魯迅傳論》참조. (林語堂 등저, 《評魯迅》39-42면. 대만: 雙和圖書社.)

50) 梁實秋는 《關於魯迅》에서 阿Q를 신해혁명전후 紹興地方에 사는 전형적인 愚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형적인 중국인의 대표인물로 보는 것은 관장된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 시대성과 지방성으로 국한시켜 보았다. (林語堂 등저, 《評魯迅》21-22면. 대만: 雙和圖書社.)

51) 蘇雪林的《魯迅的吶喊與彷徨》참조. (林語堂 등저, 《評魯迅》93-97면. 대만: 雙和圖書社.)

이밖에 노신은 소설과 병행하여 평론성을 지닌 짧은 산문을 계속 집필했는데 그 중에 날카로운 풍자와 격렬한 공격을 통해 전근대적인 병든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파헤친 것이 많다. 이는 대부분 현실의 보수적인 면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이러한 공격적인 산문을 그는 “匕首” 또는 “投槍”에 비유하고 있다.⁵²⁾

노신이 풍자성이 강한 문학작품들을 성공적으로 창작해 내고 많은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국심과 자신의 어린 시절의 “저주”를 독창성 있게 재연출하고 재현해 낸 결과이며, 나아가 새로운 문학표현 형식인 백화문을 매개로 하여 평이하게 독자들과 접할 수 있었으며, 마침 신문화 운동이 그에게 적절한 시대적 환경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노신의 문학작품 속의 문장 표현기법은 매우 정제된 것으로 간결하고 예리하며 신뜻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노신은 평이한 구어문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부단히 백화 문학작품을 창작해 냈는데 이는 초창기 백화운동의 제창에 있어 무엇 보다 중대한 일을 문인 지식인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동 논문은 그의 이러한 백화문학 창작 활동이 오늘날 중국인의 글쓰기 형식을 혁신시켜 중국국민으로 하여금 살아 있고 용이하며 자유로운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이는 실로 한 문인으로서 중국의 지식발전과 문학발전, 사회발전과 역사발전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층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문인 지식인으로서의 徐志摩(1897-1931)

서지마는 본래 은행가가 되려고 1918년 상해를 떠나 미국에 건너가 사회학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목전에 있는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또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인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문학적 예술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1922년 중국으로 돌아와 문인 모임인 新月社를 만들고 문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후 그는 新月派의 중요한 시인과 산문가로 인정을 받았으며,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중국문학의 근대화에 빼놓

52) 노신의 산문 《南腔北調集·小品文的危機》(1933): “生存的小品文, 必須是匕首, 是投槍, 能和讀者一同殺出一條生存的血路的東西.(살아남은 小品文은 반드시 비수이고 투장이어야 하며, 독자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혈로를 뚫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을 수 없는 문인이 되었다.

1) 서지마의 문학활동

서지마도 백화문학작품을 창작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노신과는 또 다른 심미적인 서술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독특한 문학세계를 형성하면서 백화문학의 문학성을 한 단계 더 새롭게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지마는 중국현대사의 격변기인 淸朝末·民國初, 1897년에서 1931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서 중국현대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작가 중 한사람이다. 그의 산문은 시와 더불어 현대문학 작품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성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지마는 현대시와 현대산문 두 분야에서 그의 창작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산문의 가치를 시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⁵³⁾ 특히 그의 산문은 열정적인 태도와 순수한 감정으로 써 내려가 인간미가 넘치며 가식적인 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서지마는 “新月派”의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창작 활동은 1921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31년 11월 19일 비행기 사고로 숨지기까지 불과 10년 사이 쓰여진 것들 이며⁵⁴⁾, 이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 자신의 “體”와 “派”를 형성하였다. 생전에 《落葉》⁵⁵⁾·《巴黎의鱗爪》⁵⁶⁾·《自剖》⁵⁷⁾ 등 3권의 산문집을 발간하였으며⁵⁸⁾ 대부분 1920년대에 쓰여진 그의 산문작품들은 그의 시와 마찬가지로 낭만적이며 서정적인 글로써

53) 梁實秋《談志摩的散文》：“我和葉公超一樣，以爲志摩的散文在他的詩以上。（나는葉公초와같이 서지마의 산문이 그의 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新月》，第4卷，第1期）

54) 시집으로는 《志摩의詩》(1922년 영국에서 귀국하여 2년간에 쓴 시로 41편을 수록, 1925년에 출판함); 《翡冷翠의一夜》(1925년부터 3년간의 시집으로 42편을 수록, 1927년 9월 新月書店에서 초판 발행); 《猛虎集》(1927-1931년의 작품, 39편을 수록, 1931년 8월 新月書店出版); 《雲遊》(서지마의 遺作으로 창작시기와 스타일은 대체로 《猛虎集》과 비슷하며 13편을 수록, 1932년 7월 新月書店出版.) 등이 있다.

55) 《落葉》은 1926년 6월 간행된 첫 번째 산문집으로 모두 7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첫 편인 《落葉》은 1924년 가을 北京師範大學에서의 강연한 원고다. 이 시기는 감정이 넘쳐 남을 막을 수 없었던 서지마 창작활동의 황금 시기에 해당된다.

56) 《巴黎의鱗爪》는 1927년 8월에 출판되었으며 《巴黎의鱗爪》·《翡冷翠山居閑話》 등, 10편을 수록하고 있다.

57) 《自剖文集》은 1928년 1월에 출판되었으며, 모두 3輯으로 나누어져 있다. 第1輯은 《自剖輯》으로 6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第2輯은 《哀思輯》으로 5편을 수록하고 있고; 第3輯은 《游俄輯》으로 13편을 수록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충실히 표현하고 그려냈다.

우리는 작품의 내용을 떠나서 서지마의 문학적인 예술적 창작태도와 창작이론을 살펴보면, 결코 그의 문학적 성과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때 최대한 적합한 낱말과 문장을 찾아 詩化 시키고 비범하게 함으로써 문학의 예술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백화문 속에 방언과 외래어 등을 자유롭게 첨가하여 화려한 長文⁵⁹⁾을 구사함으로써, 당시로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지마는 셸리(Shelley)의 이상과 열정, 바이런(Byron)의 반항성격과 기질, 키츠(Keats)의 애절함과 아름다움의 추구, 워즈워드(Wordsworth)의 청신함과 표일함, 타고르(Tagore)의 명상과 부드러움, 하아디(Hardy)의 비관과 염세, 梁啓超의 新文體 등 동·서 문인의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의 신문학을 발전시켰다.

서지마는 신문화운동 이후 봉건제도를 청산, 서구문명을 도입하고 백화문학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서구문학의 장점들을 취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문학작품을 중국에 소개함으로써 중국문학의 근대화에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도 외국의 장점들이 이식되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 중에 반영하곤 하였는데, 무엇보다 서구의 문화와 문인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소개하면서 항상 조국에 대한 사랑, 특히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산은 높은 곳을 오르려 하면서, 왜 사람은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 하지 않느냐?” 하며 향상을 당부하였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그가 말했듯이 그의 강렬한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지마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 보다 그의 문학작품에 높은 문학적 예술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의 작품 속에 박애정신과 이상의 추구 등 감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국애와 반봉건주의 및 인도주의 사상, 풍부한 감정, 세련된 백화문의 구사, 뛰어난 상상력, 화려한 언어와 비유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의 작품을 연구하고 있다.

58) 사고후 타인이 편집해 출간한 산문으로는 《秋》(1931년); 일기와 서신으로는《愛眉小札》(1936년); 일기인 《志摩日記》(1947년); 소설집 《輪盤》(1930년); 희곡 《卞昆岡》(1928년) 등이 있으며, 이밖에 당시 신문 잡지에 발표된 수많은 글들이 있다.

59) 陳從周編《徐志摩年譜》(代序(志摩師哀辭 趙景深): “像徐師這樣文采華麗, 連吐一長串的珠璣的散文作者, 在現代我還沒找到第二個。(서선생님과 같이 문장이 화려하고, 주옥같은 글귀를 한꺼번에 써내는 산문작가를 현재에서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1931. 11. 27)” (《中國學術叢書》, 77. 歷史·地理類, 上海書店)

2) 서지마의 문학세계

서지마는 자연과 이상과 생명을 자주 이야기했고, 인도주의자 였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도 깊었다. 이러한 서지마의 인생관과 성격은 그의 문학작품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박애정신은 서지마의 작품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雲遊集》에 수록된 장편시 《사랑의 영감(愛的靈感)》에서 한 소녀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군왕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순수한 사랑의 힘ियो, 프랑스의 시골 소녀 잔다르 크가 어느 날 갑자기 군복으로 무장하고 적진을 돌파하여 나라를 구한 것도 사랑의 힘이라고 읊은 후, 이어서 “사랑만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담력을 부여하며; 사랑만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진리를 알고, 가치를 알게 하며; 사랑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력 투구하여 전진하게 하며; 한가지 목표를 위하여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것조차 망각하게 한다. 이는 마치 빛과 열이 없으면 지상에 생명이 있을 수 없듯이, 만약 사랑이 없으면, 정신적 빛과 열의 근원, 일체의 밝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없다.”⁶⁰⁾고 읊고, 마지막에서 “고통은 짧고 순간적이나, 기쁨은 오래 가고, 사랑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⁶¹⁾고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만능을 부여하는 시각은 당시 중국 작가들 중에서 보기 드문 인생관이다. 이러한 시각은 몇몇 평자들에 의해, 인류의 원동력이며, 사람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支柱로 간주되기도 하였다.⁶²⁾ 서지마의 문장 속에서 사랑이 남녀간의 연애 또는 가족간의 사랑의 의미로도 자주 표현되지만, 그의 사랑이라는 뜻에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여 서구 르네상스(文藝復興)시대 이후 중시해온 인도주의 박애정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지마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겁함과 옹졸함을 일소하고, 나아가 자유를 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얼룩지게 하는 것들을 소멸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통해 인도주의적 인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동정과 연민, 관용과 자유, 인격과 개성, 사교의 독립 등의 개념을 아울러 중시하였다.⁶³⁾

60) “因爲祇有愛能給人不可理解的英勇和膽，祇有愛能使人睜開眼，認識眞，認識價值，祇有愛能使人全神的奮發，向前闖，爲了一個目標，忘了火是能燒，水能淹，正如沒有光熱這地上就沒有生命，要不是愛，那精神的火熱的根源，一切光明的驚人的事也就不能有。”

61) “苦痛是短的，是暫時的；快樂是長的，愛是不死的！”

62) 趙家璧編《秋》，48면 참조. (중국: 良友圖書印刷公司, 1931년)

63) 毛迅著《徐志摩論稿》，8-15면 참조. (중국: 四川大學 출판사 출판발행, 1991년 12월)

나아가 1925년에서 1926년 당시 사회적 배경은 군벌이 난무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대변혁의 시기로 국민의 생활은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을 목격하고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의 환경에서 공부한 서지마는 끝없이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작품을 발표하곤 하였는데, 《머리가 부서져도 내 영혼의 자유를 간직하겠다(就使打破了頭, 也還要保持我靈魂的自由)》·《수구와 「玩」舊(守舊與「玩」舊)》·《앞을 향해 전진(迎上前去)》·《자살론(論自殺)》·《여자에 관해서(關於女子)》·《의사의 처방을 구함(求醫)》·《자아 해부(自剖)》·《또 자아 해부(再剖)》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모험과 고통, 실패와 노력을 거듭하면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감정과 싸우며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세를 나타낸 작품인 《앞을 향해 전진(迎上前去)》에서 “참된 이상주의자는 눈앞에서 그가 평상시 간직하고 있던 이상이 재로 변하고, 조각이 나고, 흠땀이 되어도, 이런 재와 조각과 흠땀이 속에서 또 다시 그의 더욱 위대하고 더욱 빛나는 이상을 발견한다고 믿는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⁶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지마의 이러한 기대는 《嬰兒》에서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구절에서 “우리는 위대한 현실이 출현하기를 기대 한다. 우리는 한 온화하고 향기가 넘치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린다.”⁶⁵⁾고 시작한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의 성품이 원망·시기·살륙의 분위기 가운데, 그의 정신이 매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시기에⁶⁶⁾ 완성한 것으로 그의 理想인 “嬰兒”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嬰兒”를 낳기 위해서는 산부가 침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고통은 바로 밝은 장래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茅盾은 ‘산부’는 당시 중화민족이 제국주의와 봉건군벌이라는 이중의 억압 아래 있으며, 이러한 봉건식민통치하에서, 이 산부가 낳을 ‘영아’는 자본가 민주주의 또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정권으로 가정 할 수 있는데 서지마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서지마의 작품을 통해 볼 때

64) “我相眞的理想主義者是受得住眼看他往常保持着的理想萎成灰, 碎成斷片, 爛成泥, 在這灰這斷片這泥的底裏他再來發現他更偉大更光明的理想, 我就是這樣的一個。”

65) “我們要盼望一個偉大的事實出現, 我們要守候一個馨香的嬰兒出世。”

66) 《自剖》 참조.

그가 노동자 농민의 민주정권은 그림자조차 두려워했던 것을 보아 이 ‘영아’는 영·미식 민주주의를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국에서 이 영아는 태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서지마는 현실과 이상의 모순에서 생겨난 실망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해 더욱 강렬하고 세밀하게 해부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내 할머니의 죽음(我的祖母之死)》에서 “만약 우리가 생전에 책임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편안히 우리의 무덤으로 걸어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수치와 悔恨의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찬란한 불꽃을 발하고 돌아감을 바라는 것이다.

이밖에 서지마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부단히 세련되고 비범한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말(話)》에서 “참으로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은 사람의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말이다; 비교적 들을 만한 말은 모두 다 우연히 언급한 조용한 말 가운데 있다; 상대적으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은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문장이다; 절대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은 수정을 가하지 않고 조잡하며 어리석은 목소리로 발표된 언어다.”⁶⁸⁾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지마의 문학작품은 참으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신념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특이한 생각은 오직 특이한 낱말이나 문장만이 표현할 수 있다.”⁶⁹⁾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문학에서 평생토록 노력한 것은 적합한 낱말을 찾아 유일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또 “문장 뿐 아니라, 평상시 언어도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당신 심령의 천박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당신 스스로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 말 한마디가 당신 사상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영원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단지 말을 멋지게 유창하게 또는 수식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두 중요한 것

67) 矛盾《徐志摩論》，참조. (중국:《現代》2卷 4期, 1933년 2월 1일, 現代書局出版)

卞之琳도 서지마는 “정치경향에 있어 늘 자본주의 ‘민주’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在政治傾向上, 總不出資產階級‘民主’‘自由’的範疇.)”고 말함. (중국:《徐志摩選集·序》,《新文學史料》1892年, 第4期.)

68) “絕對的值得一聽的話, 是從不會經人口說過的; 比較的值得一聽的話, 都在偶然的低聲細語中; 相對的不值得一聽的話, 是有規律有組織的文字結構; 絕對不值得一聽的話, 是用不經修練, 又粗又蠢的噪音所發表的語言.”

69) “一個特異的意念只有一個特異的字或字句可以表現.”

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 생각에 충실하는 것과 이에 걸맞은 표현이다. 당연히 맑고 깨끗한 사상이 있어야 맑고 깨끗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충실성과 함부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해이해진 생각을 바로 잡아 주고 감성을 일깨워 주는 효과가 있다.”⁷⁰⁾고 하였다.

V. 결론

중국의 중세 六朝시대에 駢儷文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창작기교 면에서 예술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화되어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美文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문인작가들의 이러한 표현방식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궁중의 공문이나 일반인의 서신문에까지 모두 이러한 駢文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初唐시기까지도 육조시대의 풍조를 따라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한유·유종원이 등장하여 “古文運動”을 제창하여 산문체의 문장표현 기법으로 駢儷文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文以載道” “文以明道” 문학을 주장하여 문장 속에 충실한 내용을 담으며 실질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惟陳言之務去”를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고문운동은 사실상 復古의 구호 속에 당시의 문체·문풍·문학언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신문화운동으로 모든 문체에 대한 개혁과 발전을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해 時政論說·학술토론·문학비평·학업전수 등에 관한 문장 표현 뿐 아니라 모든 문장에 있어서 一新을 도모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모든 문학작품에 있어서 산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표현기법의 변화는 작가가 폐부에 있는 감정을 토로하고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며 개인의 감정을 상세히 표현하는데 자유로울 뿐 아니라 四六文이라는 형식적인 기교를 배척함으로써 진실한 사상과 감정 표현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宋·明·清代의 고문가들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산문으로 문장을 짓고 감동적인 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로 후대에 경이로운 학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발전을 가지고

70) “不要說下筆寫，就是平常說話，我們也應有相當的用心—一句話可以洩露你心靈的淺薄，一句話可以證明你自覺的努力，一句話可以表示思想的糊塗，一句話可以留下永久的印象。這不是說說話要漂亮，要流利，要有修詞的工夫，那都是不重要的；最重要的是對內心意念的忠實，與適當的表現。固然有了清明的思想，方能有清明的語言，但表現的忠實，與不苟且運用文字的決心，也就有糾正鬆懈的思想與警醒心靈的功效。”

왔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문화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¹⁾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爲民정치를 많이 펼쳤다. 이러한 면에서 한유와 유종원은 문인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커다란 성과와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간주 할 수 있는 것이다.

백화문을 제창한 노신은 문언문이 백화문 보다 확실히 글자수가 적으나 의미 또한 상대적으로 모호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모호한 문장은 지혜와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석과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명확한 백화문으로 된 설명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몇 글자 더 많더라도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것이다.⁷²⁾ 그리고 고서 속에서 살아 있는 글자를 찾는다는 것은 기만하는 말이며, 살아 있는 글자와 죽은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한눈에 쳐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곧 살아 있는 글자라는 것이다. 이는 곧 이미 다른 곳에서 본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자가 어렵고 문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 그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대부들이 고의로 더욱 어렵게 만든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중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사대부들이 문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만일 문장이 용이해지면 누구나 쓸 수 있어 문장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자신의 존엄성도 따라서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³⁾

이와 같이 살아 있는 문장을 대중화하기 위해 노신과 서지마는 새로운 글쓰기인 백화문으로 뛰어난 문학작품을 창작해 냄으로써 중국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문학양식을 모호하고 난해한 문언문에서 분명하고 살아 있는 백화문으로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노신은 소설과 산문에 있어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기고 서지마는 시와 산문에 있어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러므로 모든 장르에 있어 백화문의 사용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러한 작품창작은 당시로서는 실험적이며 창의적인 면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작품들은 오늘날 백화문이 대중화되어 보편화된 속에서도 조금도 손

71)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언어는 생각과 감정, 문화 등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로 언어와 이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문자는 한 민족의 생활 습관과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72) 《花邊文學·“此生或彼生”》.

73) 《且介亭雜文·門外文談》.

색이 없는 훌륭한 문학작품으로써 독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로써 노신과 서지마는 근세 문인 지식인으로서 커다란 성과와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던 지식인들을 보면 과감한 발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그 지식으로 기존의 제도를 개혁했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韓愈·柳宗元·魯迅·徐志摩는 모두 중국의 중세와 근세시기에 한결같이 과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중국인의 문화수준과 삶의 수준을 높인 인물들로 훌륭한 문인 지식인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지식을 확장시키고 자유를 확대시키며 역사를 발전시키는 지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屈守元 常思春 主編, 『韓愈全集校注』(1-5), 四川大學出版社 1996. 7
- 김용운, 「魯迅創作意識研究: “吶喊” “彷徨” “故事新編”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사논문 1990
- 羅聯添 著, 『韓愈研究』, 대만: 學生書局 1981. 11
- 羅聯添 編, 『中國文學史論文選集』(三), 대만: 學生書局 1979. 3
- 羅聯添 編, 『中國文學史論文選集』(二), 대만: 學生書局 1978. 5
- 魯迅 著, 『魯迅全集』(1-16), 중국: 人民文學出版社 1991
- 레이몽 아롱 지음, 安秉煜 옮김, 『知識人-삶의 고독한 존재』, 文志社 1988. 1
- 毛迅 著, 『徐志摩論稿』, 四川大學出版社, 1991. 12
- 閔斗基 著, 『中國近代史研究』, 一潮閣 1973. 4
- 민두기, 『中國에서의 自由主義의 實驗』, 지식산업사 1997. 3
- 민두기, 『중국의 전통과 근대』, 평민사 1979. 2
- 謝冕 主編, 『徐志摩名作欣賞』, 中國和平出版社, 1994. 4
- 徐志摩 著, 『徐志摩全集』(1-5), 上海書店, 1995. 8
- 성원경 지, 『노신(魯迅) - 생애와 작품세계』,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5
- 孫昌武 著, 『柳宗元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8. 12
- 梁鑒江 著, 『柳宗元傳』,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9. 10
- 柳宗元 著, 『柳宗元集』(1-4), 中華書局 2000. 1
- 柳州市柳宗元學術研究會 編, 『柳宗元研究文集』, 廣西人民出版社 1993. 7
- 李泳禧 編譯, 『8億人과의 對話』, 創作과 批評社 1977. 9
- 翟滿桂 著, 『一代宗師柳宗元』, 중국: 岳麓書社 2002. 7
- 趙遐秋 著, 『徐志摩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3
- 中國唐代文學學會韓愈研究會 編, 『韓愈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2
- 陳克明 著, 『韓愈述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7
- 陳從周 編, 『徐志摩年譜』, 上海書店, 中國學術叢書 第三編, 77 歷史·地理類
- 崔明 著, 『現代 中國의 理解』, 玄岩社 1979. 5
- 胡適·林語堂 等著, 『評魯迅』, 대만: 雙和圖書社

〈後記〉

《중국의 중·근세 문인 지식인》은 2002년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토론자인 이재룡 교수의 질문 요지와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요지를 참고로 게재한다.

〈질의 1〉 지식인의 개념이 서구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8, 9세기 중국의 지식인 개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 지식계급의 의미인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라는 말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공적 내지 사적행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직’, 문화의 유산을 계승시키거나 그것을 발전시킬지도 모를 ‘문학인’과 ‘예술인’, 그리고 ‘전문가’나 ‘과학자’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개념의 지식인은 언제나 있었으나 다만 지역과 시대에 따라 명칭상의 차이와 성격상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다.

예컨대 고대 중국에서는 이들을 士, 君子 등으로 칭하였다. 중국의 ‘士’는 大夫의 아래 庶人의 위를 차지하던 계급의 명칭이었으나 변하여 상류사회 지식계급의 사람, 뛰어난 인물, 도의를 행하고 학예를 닦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고대의 士는 자신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인격 수양의 덕목들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개념으로 칭할 때는 동일한 개념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지식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2〉 중국의 지식인은 주로 유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밖에 다른 견해가 있는지?

〈답변〉 고대 중국의 지식인은 주로 유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통을 중시하였으나, 5·4 신문화운동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유교의 사상과 전통을 타파하지는 주장이 일어났다. 예컨대 노신은 그의 작품 《광인일기》에서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 ‘인의도덕’이라고 쓰여있지만 이는 바로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유교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한 원인이 있었

지만 아무튼 중국의 지식인이 모두 유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에 와서는 유가사상 중에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자는 신유가가 대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